

# 계육산업뉴스

## Broiler industry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우 137-04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 · 6 FAX (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제4권 제 1호 통권31호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IMF의 매서운 채찍 계육산업도 거품제거에 과감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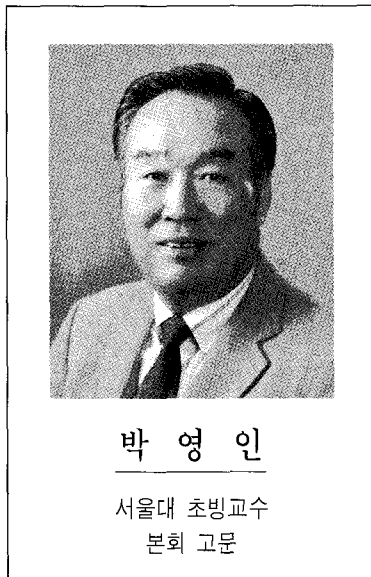
자제(自製)할 줄 모르는 국민은 반드시 타제(他製)를 받는다. 이는 영국의 정치학자 Edmund Burke의 말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IMF사태를 실감케 하는 적절한 표현이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이 밖으로부터 왔는가. 진정 타할 것은 우리 자신의 허세일 것이다. 흥청망청, 적당히, 무질서하게, 분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국내의 이런 거품을 국제기구가 제거하려 나선 것이다. 창피한 일이긴 하나 좋은 기회로 알고 그 동안의 부조리를 과감하게 정리하여 세계의 선진대열에 떳떳하게 서야 한다.

계육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의 세계(one world), 하나의 시장(one market), 하나의 가격(one price), 하나의 품질(one quality), 하나의 고객(one customer)을 상대로 하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산업 전 부문에 일고 있는 거품요소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 당면한 문제에 못지 않게 3I(아이) 체계를 생각해야 할 줄 안다.

첫째 I는 개별(Individual) 단계이다. 병아리에서 요리계육에 이르는 각 단계의 개별 기술과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이는 경영의 기초이론이며 산업의 핵심과제이다. 개별효율을 높여 생산, 유통, 소비의 단계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둘째 I는 통합(Integration) 단계이다. 개별단계의 기술과 경제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통합경영하는 일이다. 즉 농장/생산, 공장/가공, 시장/유통의



박 영 인

서울대 초빙교수  
본회 고문

3단계를 경영적으로 통합(삼장통합)함으로써 비용절감, 품질향상, 소비자 서비스 제고의 일관체계를 구축, 통합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셋째 I는 산업(Industry/ International) 단계이다. 개별단계의 기술과 경제, 통합단계의 경영을 기초로 하는 전국단위 계육산업의 입지를 강화하는 일이다. 개별 및 통합 단계를 전국 산업으로 조직화(예, 계육협회) 하여 소비촉진, 수급안정, 수출입, 정책개발과 같은 산업의 공동관심사를 함께 풀고 산업/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3I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거품제거의 첩경이다. 아직도 병아리, 사료, 생계가 중간재가 아닌 상품으로 유통되고 비위생적인 계육을 생산/유통하며 무분별하게 계육을 수입하는 것은 모두가 거품이다. 계열주체나 협동조합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계열경영에 태만하는 것도 부도를 자초하는 허세이다.

당장 어려운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자. 문제란 항상 있게 마련이고 경영을 잘못하는 기업은 도산하는 법이다.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기는 길이다. 어느 계열주체의 사장은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경영원리가 다 들어 있다고 말한다. 어려움에 처한 계육산업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경영원칙을 찾아 거품제거에 과감하면 반드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